

을미년

양에 얽힌 이야기

2015년은 을미년(乙未年)으로, 청양(靑羊) '푸른 양'의 해다. 양은 십이지 중 여덟 번째 동물로 방향은 남남서를 지키는 방위신이며, 시간은 오후 1~3시, 달(月)로는 음력 6월에 해당하는 시간신이다. 십이지에서 양은 순하고 평화로운 동물로 나타나 있다. 성격이 온화해 무리지어 살지만 다툼이 없다. 조상들은 양을 어질고 착하며 참을성 있는 동물, 평화와 희생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겼다.

지천명의 乙未年 운세

2015년은 신령스러운 푸른빛의 양이 신록의 발판에서 여유롭게 풀을 뜯으며 노니 동세로써, 역사 발전을 향한 대단원의 막을 올릴 것이다. 경제계는 지난 날, 애써 뿌려 놓은 핵심 가치의 씨앗이 오랜 저성장의 기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며, 정치계는 더불어 살아가고자하는 국민적 의식 개혁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리라. 국제 사회에서는 복잡적 불안 요인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 질서의 세력 균형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 된다.



푸른 양은 '행운' 상징... 희생과 정직의 동물

'羊'의 뿔과 꼬리 떼면 '王' 의미

善·義·美 글자에도 '긍정' 함축

양이 등장하는 일화로 태조 이성계의 꿈이 있다. 초야에 묻혀 지내던 이성계가 양을 잡으려는데 양의 뿔과 꼬리가 몽땅 떨어지는 꿈을 꾸었다. 꿈 이야기를 들은 무학대사는 '양(羊)'이라는 한자에서 양의 뿔과 꼬리가 떨어지면 '왕(王)'자만 남게 되니 임금 이 되리라 해몽했다. 후에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가 됐고, 양 꿈은 길몽으로 해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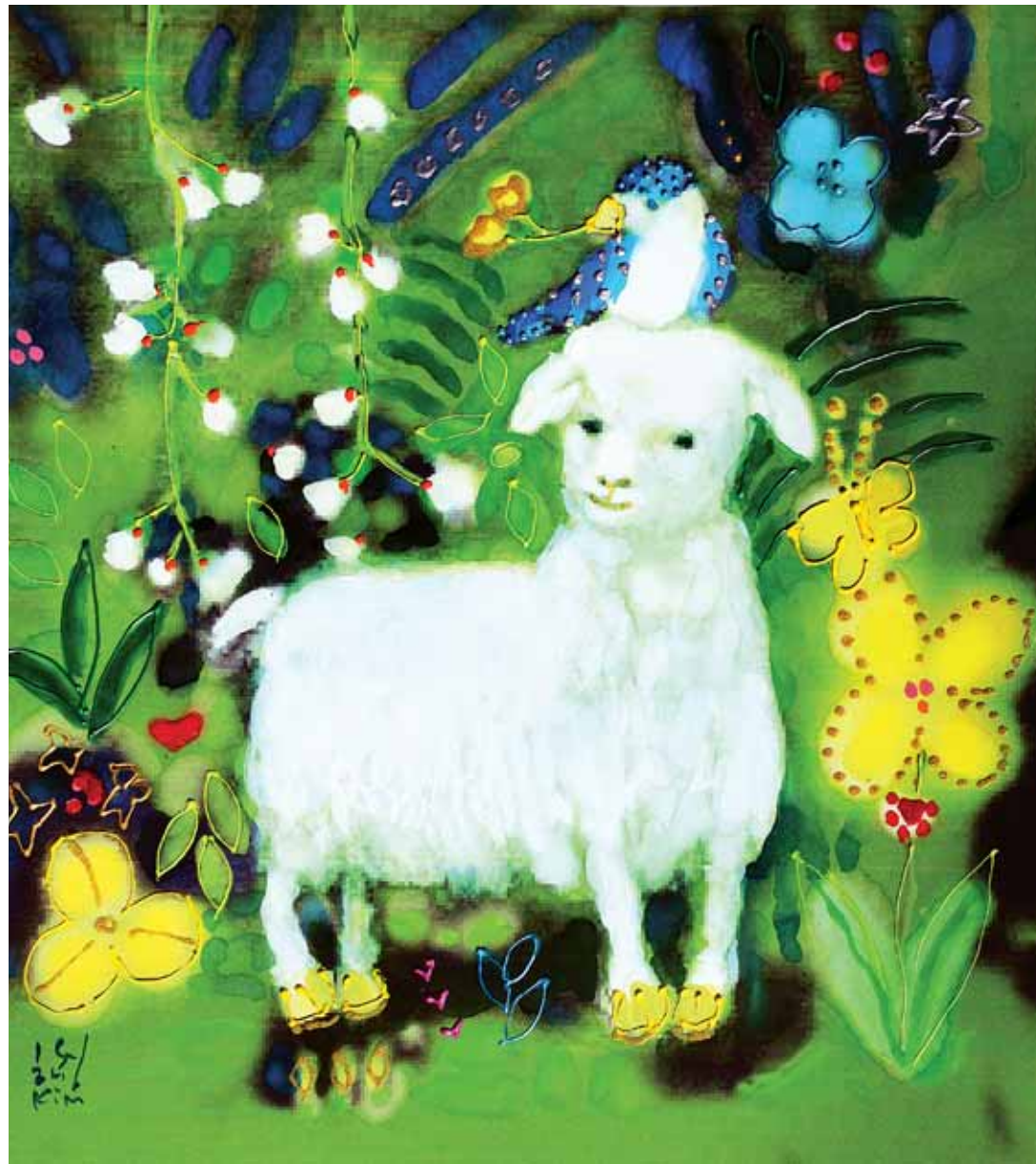
양(羊)이라는 글자 자체도 좋은 의미만 담고 있다. 착할 '선(善)', 아름다울 '미(美)', 옳을 '의(義)' 등 글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양은 유순하고 상서로운 의미를 담고 있는 긍정적 동물이다.

양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희생을 상징해왔다. 양의 가장 큰 상징적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속죄양(贖罪羊)일 것이다. 서양에서는 사람을 징벌하는 신에게 희생물로 바쳐졌으며,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제사용으로 쓰였다.

양은 또한 정직과 정의의 상징이다. 천성이 착한 탓에 해로움을 끼칠 줄도 모르고 오직 희생해야 하는 양들은 우리 민족사에 비견되기도 한다. 구한말 지사(志士) 김홍학 선생은 "흰빛을 좋아하는 우리 선조들은 심약하기 이를 데 없는 신양 때를 빼어 닮아 오직 인내와 순종으로 주어진 운명에 거역할 줄 모르고 남으로, 남으로 강자에게 쫓겨 더 갈 수 없는 곳까지 밀려왔건만 동서의 강자들은 또다시 이빨을 가니 슬프다 양떼들이어!"라고 외치기도 했다.

양(羊)은 글자 형태로는 '상(祥)', 음으로는 '양(陽)'과 서로 통하여 길상의 의미로 일찍부터 한국 문화 속에 등장하기도 했다. 양에 관한 유물은 여러 방면에서 발견된다.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의 의미도 강한 한편 장식품으로도 주목 받는 동물이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그림=김해성 ▲조선대 미술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한국미협 이사 ▲'선과 색' 회원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36. 48년생은 오랫동안 공들여 왔던 것에 대해서 끝까지 정성을 다 한다면 결실을 보기 시작하리라. 60. 72년생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 보이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느냐가 성취 여부를 좌우할 것이다. 84년생은 천지신명의 은혜를 입어 대성할 기운을 얻었으니 몸을 낮추고 진력하라.



37. 49년생은 좁은 미로에서 빠져나와 큰 길로 향하는 성국이니라. 61년생은 흥미를 끝만한 일이 발생하면서 연쇄적인 동력원이 되어 줄 것이다. 73. 85년생은 창의성과 임기응변의 묘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운이니, 기본적인 정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흥기를 잡을 수 있다.



38년생은 가변적인 구도를 제대로 읽는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50. 62년생은 사소한 마무리의 미진으로 인해 다른 이에게 실의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 74. 86년생은 관점과 수용의 폭에 따라 달리 보일 것이니, 속단하지 말고 진지하게 숙고해야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39. 51년생은 시도하기에 앞서서 한 번만 더 살펴본다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단초 앞에서 놀라게 될 것이다. 63년생은 은인의 숨은 조력으로 인해 난해한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한다. 75. 87년생은 구중심체로부터 길질을 상징하는 온기가 지표면을 뚫고 올라오고 있느니라.



40년생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려는 충실함이 있다면, 전화위복의 장을 펼칠 수 있다. 52. 64.76년생은 원하는 바를 일시에 충족시키키에는 이르지만, 얼마나 강도 높게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뜻하지 않은 영역으로까지 진출하는 행운이 따를 수 있다. 88년생은 간밤에 내리던 폭풍우가 그치니 태양이 밝게 웃는다.



41. 89년생은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가 연중 내내 영향을 미칠 것이니, 신중에 장고를 거듭해야 할 것이니라. 53년생은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한바탕 소나기가 내린 뒤에 뜨는 오색찬란한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운세이다. 65. 77년생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임해야 할 중차대한 국면에 이를 것이니 대체와 순리에 따르는 것이 길하다.



42. 66년생은 가시적인 현상의 파악에 그친다면, 이면에 내재된 핵심 가치를 간과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54년생은 역경 가운데 인내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조처한다면, 흥성의 기운을 막고 길지로 향하게 되어 있다. 78. 90년생은 스스로의 역량을 제대로 알고 그 범위 내에서 도모한다면, 화도 복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43년생은 물고기나 큰물을 만나니 넓은 바다로 흘러들어 가리라. 55. 67년생은 숙명적인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인 바,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승세를 굳히게 될 것이다. 79. 91년생은 여러 차례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한 번 길경에 이르면, 독보적으로 승승장구할 것이다.



44. 80년생은 얼어붙은 겨울 땅에 한 줄기 뜨거운 열풍이 강력하게 불어오는 이치이니, 기대해 볼 만하다. 56년생은 더 할 수 없이 기쁘고 좋은 일이 줄기차게 이어질 수도 있다. 68. 92년생은 경쟁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마당이니,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여 야미련이 남지 않게 된다.



45. 81년생은 서방의 상서로운 기운을 타고 힘차게 떠오르는 판세이니, 궁극의 목표를 실현하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대길운이로다. 57. 93년생은 재물운이 지천에 파다 하더라도 시도하면 내 것이요, 잠자코 있으면 흘러가버릴 뿐이다. 69년생은 옥같이 영롱한 이슬을 머금은 꽃봉오리에 벌과 나비들이 몰려드는 격이다.



46. 70년생은 꿈에 그리던 기회가 황금처럼 반짝이지만 운명의 신은 행동하는 이의 편일 것이 되느니라. 58년생은 기쁨의 샘이 넘쳐흐를 것이니 과욕을 절제하고 합리적 이성애 따름이 오래도록 만족하는 비결이 되리라. 82. 94년생은 강을 건너고자 할 즈음, 때맞추어 행운으로 향하는 나룻배가 다가오니 반갑기 그지없을 것이다.



47. 59년생은 기본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중차대함을 얻게 되니, 과감하게 시도해야 할 형세로다. 71. 83년생은 처음에는 진로에 장애물이 비칠 수도 있으나 묵묵히 대처해 나간다면, 차츰 변하여 영화와 귀함이 한 몸이 되리라. 95년생은 유력자의 도움이나 이익을 얻게 되어 매우 행복할 것이다.

역사 속 을미년

을미년 중 가장 사람들 기억에 남는 사건은 단연 '을미사변'이다.

1895년(고종 32)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가 주동이 돼 명성황후를 시해 한 사건이다.

이 해 10월 8일 새벽, 일본인 자객들은 서대문을 거쳐 우병선·이두황이 지휘한 조선 훈련대와 합류해 광화문을 통과했다. 이들은 한 나라의 국모를 처참하게 살해한다.

이 해에는 유독 역사적 사건이 많았다. 명성황후

1895년 일본 공사의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

이순신 '난중일기' 중 1권 '을미일기' 일부 추가 발굴

시해사건과 단발령(斷髮令)에 격분한 유생들이 친일 내각의 타도와 일본세력의 구축(驅逐)을 목표로 항일의병을 일으킨다.

또 을미사변은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과 왕세자가 1896년 2월 11일부터 약 1년간 조선의 왕궁을 떠나 러시아 공관으로 옮겨 거처한 아관파천으로 이어진다.

시간을 거슬러 보면 역사 속 을미년은 임진왜란(1592년) 기간에도 등장한다.

지난해 영화 '명량' 돌풍으로 새삼 주목받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는 이 해를 기록한 '을미일기'가 지난 2007년 새로 발굴되기도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www.kps.co.kr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새해 **우**맞이

한전KPS가 빛가람도시에서 백년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1위 달성,
한국재무경영대상 공기업 재무구조대상 최우수기업 선정으로 빛나는
한전KPS가 빛가람혁신도시에서 백년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발전설비 정비의 명가(名家) - 한전KPS!

한전KPS주식회사

한전KPS가 하는 일 · 발전 설비(수력, 화력, 원자력) 정비 · 송변전설비 정비 · 민간산업설비 정비 · 특화기술서비스 · 해외발전설비 운전 및 정비 · 신재생에너지